

2013. 5. 12

제목: 생일 다음날

오늘은 내 생일 다음날이다. 어제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번년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 생일날을 알기로 못냈다. 금요일 밤부터 진상손님 두명때문에 너무 힘들고 살기 싫고 짜증 짱이었다. 그런데 11일 12시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축하카톡 문자 전화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선물도 많이받고 많은사람들이 이렇게 내생일을 기억해 줄줄 생각도 못했었다. 그리고 밤새고 레슨때문에 학원에 가서 너무 피곤하게 있는 날데리고 치킨도 사주고 생일이라고 인형뽑기도 해서 인형도 뽑아주고 날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인가보가 ㅎㅎ

하마터면 집에서 잠만자고 또 일을가야하는 불쌍했을 텐데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하루가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재밌게놀고 집에가니까 세상에나 엄마가 닭볶음탕을 해놨다 ㅎㅎ~^^~ 이역국을 좋아하는 엄마의 배려였다^^~ 도 생일선물이라고 2만원도 줬다^^~^^~

하지만 두시간자고 또 일을가야해서 너무 힘들었다ㅠㅜ 그래도 마지막 일본 남기고도 축하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다~^^~ 내가 받은만큼 다른 사람들 생일도 잘챙겨줘야지 ㅎㅎ 내년에도 많은사람들이 날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오늘알기 끝^^~

